

하노이대학교

한국어과



관용어, 속담, 어휘, 쓰기
(TOPIK)

하노이, 2013.8

목록

관용어	1
속담	11
유의어	24
비슷한 문법	30
쓰기	34

관용어

눈 밖에 나다 눈에 나다	신임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되다
밭(이) 넓다[너르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머리를 맞대다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
입을 모으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하다
된서리를 맞다	1.되게 내리는 서리를 맞다. 2.모진 재앙이나 억압을 당하다.

된서리를 치다	되살아나거나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모진 타격을 가하다..
으름장을 놓다	Đe dọa bằng hành động hoặc lời nói.
갈피를 못 잡다	Không biết nên xử lý thế nào không thể nắm bắt được.
발 벗고 나서다 맨발(을) 벗고 나서다	적극적으로 나서다.
말꼬리를 흐리다	Không trả lời rõ ràng, chính xác
얼굴이 두껍다 얼굴 가죽이 두껍다 낮(이) 두껍다 낮가죽(이) 두껍다 면피가 두껍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다.
햇빛을 보다 Ra đời	1. 오랫동안 준비해 온 원고가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었다. 2. 낙태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는 태아들이 수없이 많다. 3. 살아생전에 그의 소설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고 말았다.
가슴을 치다	마음에 큰 충격을 받다.
고배를 들다 [마시다/맛보다]	패배, 실패 따위의 쓰라린 일을 당하다.

하늘을 찌르다	1.매우 높이 솟다. 2.기세가 몹시 세차다.
어깨가 무겁다	무거운 책임을 져서 마음에 부담이 크다.
손(이) 빠르다 손(이) 싸다 손(이) 재다	1.일 처리가 빠르다. 2.파는 물건이 잘 팔려 나가다.
눈을 붙이다	잠을 자다
귀를 기울이다 귀를 재다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
등을 돌리다	뜻을 같이하던 사람이나 단체와 관계를 끊고 배척하다
바람을 일으키다	1.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다. 2.사회적 문제를 만들거나 소란을 일으키다..
발을 맞추다	Hòa theo nhịp chân, theo nhịp, cùng hợp theo nhịp, khớp với phương hướng nhịp điệu.
머리를 식히다	흥분되거나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다
속을 태우다	몹시 걱정이 되어 마음을 졸이다.
고개를 끄덕이다	옳다거나 좋다는 뜻으로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다.
가슴이 벅차다	Rất phấn chấn, hoi hoi

맥을 놓다	긴장 따위가 풀려 멍하게 되다.
열(을) 올리다[내다]	1. 흥분하여 성을 내다. 2. 무엇에 열중하거나 열성을 보이다.
기가 차다	하도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다.
넋이 빠지다	1. Quá miệt mài, chú ý vào việc gì 2. Hơi ngớ ngẩn
귀가 솔깃하다	Chú ý lắng nghe
낮이 뜨겁다	Xấu hổ
부담을 주다	Gây cho ai nặng nề
실미리를 찾다	Tìm ra đầu mối, tìm ra cách giải quyết.
가닥을 잡다	분위기, 상황, 생각 따위를 이치나 논리에 따라 바로 잡다.
눈독(을) 들이다[쏘다/올리다]	욕심을 내어 눈여겨보다
골머리를 썩이다 머리를 썩이다	어떤 일로 몹시 애를 쓰며 생각에 몰두하다.
물불을 가리지[헤아리지] 않다	위험이나 곤란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다.
혀를 내두르다[두르다]	몹시 놀라거나 어이없어서 말을 못하다.
침이 마르다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거듭해서 말하다.

입에 침이 마르다 입이 닳다 입이 마르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허리띠를 조르다	1.검소한 생활을 하다. 2.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새로운 결의와 단단한 각오로 일에 임하다.
입에 대다	음식을 먹거나 마시다. 또는 담배를 피우다.
진을 빼다	힘이나 정력을 다 써 없어서 기진맥진하게 되다
한눈을 팔다 먼 눈을 팔다	ĐỂ MẮT, ĐỂ suy nghĩ đầu đầu không tập trung suy nghĩ
자리를 잡다	1.일정한 지위나 공간을 차지하다. 2.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를 박은 듯 계속 남아 있다.
다리를 놓다	상대편과 관련을 짓기 위하여 중간에 다른 사람을 놓다.
각광(을) 받다(입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주목을 받다.
기치를 내걸다	
활개를 치다/ 젓다	1.힘차게 두 팔을 앞뒤로 어긋나게 흔들며 걷다. 2.의기양양하게 행동하다. 또는 제 세상인 듯 함부로 거들먹거리며 행동하다.

환심을 사다	
손을 벌리다 손(을) 내밀다.	1.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 2.도움, 간섭 따위의 행위가 어떤 곳에 미치게 하다.
머리를 숙이다	1.[같은 관용구] 머리(를) 굽히다. 2.마음속으로 탄복하여 수궁하거나 경의를 표하다.
발목을 잡히다	1.어떤 일에 꼭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다. 2.남에게 어떤 약점이나 단서(端緒)를 잡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매우 귀엽다.
일이 손에 익다	Quen tay
꼬리를 물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계속 이어지다
파김치가 되다	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슨하게 되다.
발 빼다	어떤 일에서 관계를 완전히 끊고 물러나다.
입이 닳다 입에 침이 마르다 침이 마르다. 입이 마르다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거듭해서 말하다.
발목을 잡다	1.어떤 일에 꼭 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다.

	2.남의 어떤 약점을 잡다.
어깨를 나란히 하다 어깨를 같이하다	1.나란히 서거나 나란히 서서 걷다. 2.서로 비슷한 지위나 힘을 가지다.
벽에 부딪히다	Đụng vào tường, phát sinh vấn đề
눈에 선하다	Không tài nào quên được, cứ vấn vương trong suy nghĩ
입이 가볍다	1. Lắm lời 2. Không giữ được bí mật
고개가 수그러지다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다
진땀(을)빠다 [뺨다/흘리다]	어려운 일이나 난처한 일을 당해서 진땀이 나도록 몹시 애를 쓰다.
발등을 째히다	남에게 배신을 당하다.
시선을 끌다	Thu hút ánh nhìn, sự quan tâm
부담을 주다	Gây gánh nặng cho ai
결실을 맺다	Có thành quả, kết quả
실감을 하다	Cảm giác thật, cảm giác như thực
손에 땀을 쥐다	아슬아슬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도록 몹시 애달다.
고개가 수그러다	Íu xiu, không có khí thế

가슴이 찢어지다	슬픔이나 분함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다
손을 씻다/털다	1.부정적인 일이나 찜찜한 일에 대하여 관계를 청산하다. 2.본전을 모두 잃다.
팔짱 끼고 보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보고만 있다
눈에 불을 쬐다	1.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기울이다. 2.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다.
관소매를 걷어붙이다	1. [같은 관용구] 팔소매를 걷다. 2. 싸울 태세를 갖추다.
시동을 걸다	Khởi động nỏ máy, bắt đầu làm việc gì
박차를 가하다	Đẩy mạnh, tăng cường thêm cho công việc nhanh.
눈살을 찌푸르다	Cảm thấy khó chịu
시치미(를) 떼다[따다] 시침(을) 떼다[따다]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
가슴을 쓸어내리다	An tâm, vững tâm
맥이 빠지다	1. Mệt mỏi và vất vả 2. Thất vọng, mất ý chí

한술더 뜨다	1. 이미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는 일에 대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 엉뚱한 짓을 하다. 2. 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미리 헤아려 거기에 대처할 계획을 세우다.
똥짐(을) 지다[짚다]	어떤 일에 자신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
가닥이 잡히다	분위기, 상황, 생각 따위를 이치나 논리에 따라 바로 잡게 하다.
머리를 쥐어짜다	몹시 애를 써서 궁리하다.
고개를 갸웃거리다	Lắc đầu, không đồng ý, không hài lòng
풀이 죽다	Mất nhuệ khí, mất tinh thần
속이 타다	걱정이 되어 마음이 달다.
기가 막히다	Sững sờ, không biết nói sao
찬물을 끼얹다	잘되어 가고 있는 일에 뛰어들어 분위기를 흐리거나 공연히 트집을 잡아 헤살을 놓다.
어깨가 으쓱거리다	뽐내고 싶은 기분이나 멋쩍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이 되다
몸을 사리다	1. Giữ mình, tránh cho mình trách nhiệm 2. Tránh công việc, trở nên thận trọng (việc làm, lời nói)

가슴을 치다	마음에 큰 충격을 받다.
가슴이 뜨끔하다	자극을 받아 마음이 깜짝 놀라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다
발뺨을 하다	Trốn tránh trách nhiệm
턱걸이를 하다	1. Sống dựa người khác 2. Đạt được một cách khó khăn 1 tiêu chuẩn nào đó.
목을 축이다	Nhập giọng
손에 잡히다	마음이 차분해져 일할 마음이 내키고 능률이 나다.
입에 풀칠하다	근근이 살아가다.
한 배를 타다	운명을 같이하다.
속을 태우다	몹시 걱정이 되어 마음을 졸이다.
일침을 가하다	Phê phán ai
기우에 불과하다	Lo vớ vẩn
술머리를 썩이다	Rất khó nhọc, rất mệt mỏi trong suy nghĩ
눈에 불 (쌍심지를)을 켜다	Tức giận đến nổi mắt nảy lửa, nảy lòng tham, nổi giận.
코앞에 닥치다	Sắp đến , sắp xảy ra
입에 침이 마르다	(Khô nước miếng) khen luôn miệng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Trước khi nước bọt khô trên miệng) vừa nói xong thì...

입에 침이 마르도록	Nói đi nói lại nhiều lần
감을 잡다	Nắm bắt, hiểu được tình hình công việc, cảm nhận được.
눈길을 주다	Tạo sự quan tâm, quan tâm đến
앞뒤를 재다[가리다/헤아리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이해나 득실을 신중하게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다
눈을 감아주다	Nhắm mắt cho qua
바가지를 긁다	Vợ cản nhắc chồng
가뭇에 콩 나다	Đậu nảy mần mùa hạn, việc hiếm khi xảy ra
취 죽은 듯하다	Lặng như tờ
씻은 듯이	아주 깨끗하게.
콧대가 높다	Kiêu ngạo
손이 모자라다	Thiếu người làm, thiếu lao động
눈이 멀다	Tối mắt vì cái gì, việc gì
입이 무겁다	Ít nói, kín miệng
혀를 내두르다	Khen lầy khen đẽ, khen nức nở
혀를 차다 혀끝을 차다	마음이 언짢거나 유감의 뜻을 나타내다.
혀를 놀리다 혀를 굴리다	Khua môi múa mép

귀를 의심하다	Nghi ngờ cái tai, nghi ngờ phải chăng mình nghe sai, nghe nhầm
귀가 솔깃하다	Chú ý lắng nghe
귀가 번쩍 뜨이다	들리는 말에 선뜻 마음이 끌리다.
귀에 못이 박히다	Nghe mãi, nghe hoài đâm chán tai
직성이 풀리다	Hài lòng, thỏa mãn
숨을 막다 숨이 막히다	Ngạt thở
갈피를 잡지 못하다	Lúng túng, không biết nên làm thế nào

속담

누워서 침 뱉기 내 얼굴에 침 뱉기 자기 얼굴[낮]에 침 뱉기 제 갓에 침 뱉기	1.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같은 속담] 하늘 보고 침 뱉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다 모로 가나 기어가나 서울 남대문만 가면 그만이다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말.
울며 겨자 먹기 눈물 흘리면서 겨자 먹기	맵다고 울면서도 겨자를 먹는다는 뜻으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하고

개미 쳇바퀴 돌듯	제자리걸음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작이 반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뽑아] 먹듯	애써 알뜰히 모아 둔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털어 써 없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강 건너 불 보듯 강 건너 불구경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여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모양.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랴	거미가 사람의 입 안에 거미줄을 치자면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 식량이 떨어져도 사람은 그럭저럭 죽지 않고 먹고 살아가기 마련임을 비유적...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 1.[같은 속담] 장님 코끼리 말하듯. 2.[같은 속담] 장님 코끼리 말하듯.	1. 일부분을 알면서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2. 능력이 없는 자가 분에 넘치는 큰일을 이야기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밭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말은 비록 밭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범도 제 말[소리] 하면 온다 시골 놈 제 말 하면 온다 범도 제 소리 하면 오고 사람도 제 말 하면 온다	1. 깊은 산에 있는 호랑이조차도 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찾아온다는 뜻으로,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 2.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를 이르는

까마귀 제 소리 하면 온다	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천 냥 빚도 말로 갚는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액 하면 떡 한다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1.상대편이 자기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자기도 상대방에게 좋게 한다는 말. 2.말은 누구에게나 점잖고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는 말.
계란으로 바위 치기 달걀로 바위[백운대/성] 치기 바위에 달걀 부딪치기 바위에 머리 받기	대항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언 발에 오줌 누기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서울 (가서) 김 서방 찾는다[찾기]	넓은 서울 장안에 가서 주소도 모르고 덮어놓고 김 서방을 찾는다는 뜻으로, 주소도 이름도 모르고 무턱대고 막연하게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우는 놈 한 번 더 때린다	미운 놈은 미워한다는 것이 알려지면 뒤에 화를 입을 수 있어서 마지못해 떡 하나를 더 주지만 우는 놈은 당장 듣기 싫어서 울음을 멈추라고 한 대 더 때리게 된다는 뜻으로, 미운 놈보다...
그림의 떡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싼 것이 비지떡 값싼 비지떡 값싼 것이 갈치자반	값이 싼 물건은 품질도 그만큼 나쁘게 마련이라는 말.
수박 겉 핥기 꿀단지 겉 핥기[핥는다]	맛있는 수박을 먹는다는 것이 딱딱한 겉만 핥고 있다는 뜻으로, 사물의 속 내용은 모르고 겉만 건드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친구 따라[친해] 강남 간다 동무 따라 강남 간다 벗 따라 강남 간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아니하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불난 데 풀무질한다 끓는 국에 국자 휘젓는다 불난 집에 키 들고 간다 불붙는 데 키질하기	남의 재앙을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들거나 성난 사람을 더욱 성나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식은 죽 먹듯 식은 떡 떼어 먹듯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예사로 하는 모양.
쇠귀에 경 읽기	소의 귀에 대고 경을 읽어 봐야 단 한 마디도

쇠코에 경 읽기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
굽어 부스럼 공연히 굽어서 부스럼 만든다 아무렇지도 않은 다리에 침놓기 올려서 아이 뺨 치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공연히 건드려서 걱정을 일으킨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말 잃고 외양간 고친다 도둑맞고 사립[빈지]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빼라] 단김에 소뿔 빼듯	든든히 박힌 소의 뿔을 뽑으려면 불로 달구어 놓은 김에 해치워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생각했으면 한창 열이 올랐을 때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비유적으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먹으면 된다]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말고 되어 가는 형편을 보고 있다가 이익이나 얻도록 하라는 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 가랬다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
산 넘어 산이다 갈수록 태산[수미산/심산](이라) 산은 오를수록 높고 물은 건널수록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깊다 재는 넘을수록 험하고[높고] 내는 건널수록 깊다	
티끌 모아 태산 모래알도 모으면 산이 된다 실도랑 모여 대동강이 된다 면지도 쌓이면 큰 산이 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늘의 별 따기	무엇을 얻거나 성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
속 빈 강정(의 잉어등 같다) 사탕붕어의 경둥경둥이라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바람 앞의 등불 바람받이에 선 촛불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이란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마른하늘에 날벼락[생벼락] 마른하늘에 벼락 맞는다 맑은 하늘에 벼락 맞겠다	뜻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뜻밖에 입는 재난을 이르는 말
도토리 키 재기 난쟁이끼리 키 자랑하기	1.정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다툼을 이르는 말. 2.비슷비슷하여 견주어 볼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말.
불(을) 보듯 뻔하다[흰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명백하다.
판에 박은 듯하다	사물의 모양이 같거나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다.
변덕이 죽 끓듯 하다	말이나 행동을 몹시 이랬다저랬다 하다.
가물에 콩(씨) 나듯	가뭄에는 심은 콩이 제대로 싹이 트지 못하여 드문드문 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나 물건이 어쩌다 하나씩 드문드문 있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 발에 (주석) 편자 개 귀에 방울 개 대가리에 관[옥관자] 개 목에 방울(이라) 개 발에 (뚝)대갈[버선/토시짜]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손톱 밑의 가시	손톱 밑에 가시가 들면 매우 고통스럽고 성가시다는 뜻으로, 늘 마음에 꺼림칙하게 걸리는 일을 이르는 말.
가재는 게 편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한빛이라 검정개는 돼지 편 검정개 한패[한편] 검둥개는 돼지 편	모양이나 형편이 서로 비슷하고 인연이 있는 것끼리 서로 잘 어울리고, 사정을 보아주며 감싸 주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달리는 말에 채찍질 닫는 말에도 채를 친다	1.기세가 한창 좋을 때 더 힘을 가한다는 말. 2.힘껏 하는데도 자꾸 더 하라고 한다는 말.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등잔 밑이 어둡다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
공든 탑이 무너지라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불 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때린 장구 북소리 날까	1.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실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징검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아는 길도 물어 가랬다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
땅 짚고 헤엄치기 주먹으로 물 쫓기	1.일이 매우 쉽다는 말. 2.일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는 말.
원님 덕에 나팔[나발] 분다 사또 덕분에 나팔 분다	사또와 동행한 덕분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1.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쓴 보람이 나타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겉 다르고 속 다르다	1.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마음속으로 품고

<p>겉과 속이 다르다 겉 보기와 안 보기가 다르다</p>	<p>있는 생각이 서로 달라서 사람의 됬됨이가 바르지 못함을... 2.마음속으로는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꾸며서 행동한다는 말.</p>
<p>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발보다 발가락이 더 크다 아이보다 배꼽이 크다 몸보다 배꼽이 더 크다 눈보다 동자가 크다</p>	<p>1.발보다 거기에 붙은 발가락이 더 크다는 뜻으로, 기본이 되는 것보다 덧붙이는 것이 더 많거나 큰 ... 2.일이 도리와 반대가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p>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p>	<p>1.내용이 좋으면 겉모양도 반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겉모양새를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p>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입에 쓴 약이 병을 고친다</p>	<p>자기에 대한 충고나 비판이 당장은 듣기에 좋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면 자기 수양에 이로움을 이르는 말.</p>
<p>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p>	<p>비에 젖어 질척거리던 흙도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뜻으로,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p>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나무 잘 타는 잔나비 나무에서 떨어진다 닭도 화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p>	<p>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아는 길도 물어 가랬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징검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낮익은 도끼에 발등 찍힌다 믿던 발에 돌 찍힌다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열 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무리 뜻이 굳은 사람이라도 여러 번 권하거나 꺾고 달래면 결국은 마음이 변한다는 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자기의 능력 밖의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 뒷간 기둥이 물방앗간 기둥을 더럽다 한다 허청 기둥이 측간 기둥 흥본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
서당 개 삼 년에 풍월(을) 한다[읹는다/짚는다]	서당에서 삼 년 동안 살면서 매일 글 읽는 소리를 듣다 보면 개조차도 글 읽는 소리를

독서당 개가 맹자 왈 한다 당구 삼 년에 폐풍월(吠風月)	내게 된다는 뜻으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부문에 오래 있으면...
병 주고 약 준다 술 먹여 놓고 해장 가자 부른다 등 치고 배 만진다	남을 해치고 나서 약을 주며 그를 구원하는 체한다는 뜻으로, 교활하고 음흉한 자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죽인다] 어설픈 약국이 사람 죽인다 서투른 의원이 생사람 잡는다	의술에 서투른 사람이 치료해 준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뜻으로, 능력이 없어서 제구실을 못하면서 함부로 하다가 큰일을 저지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의사가 제 병 못 고친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자기가 자신에 관한 일을 좋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남의 손을 빌려야만 이루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꿈보다 해몽이 좋다	1.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 생각하여 좋게 풀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같은 속담] 꿈은 아무렇게 [잘못] 꾸어도 해몽만 잘하여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있다]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
친구 따라[친해] 강남 간다 동무 따라 강남 간다 벗 따라 강남 간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아니하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어떤 일에 있어 서로 다 이롭고 좋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한 우물(을) 파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여 끝까지 하다.
제 눈에 안경 눈에 안경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제 마음에 들면 좋게 보인다는 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김정 송아지/과부 집 머슴살이/처녀]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한다는 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떡 본 김에 굶한다 소매 긴 김에 춤춘다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는 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진주가 열 그릇이나 꿰어야 구슬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	1.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쓴 보람이 나타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밑 빠진 독[가마/항아리]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이 채워질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힘이나 밀천을 들여도 보람 없이 헛된 일이 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닭 쫓던 개 지붕[먼산] 쳐다보듯 닭 쫓던 개 울타리 넘겨다보듯 닭 쫓던 개의 상	개에게 쫓기던 닭이 지붕으로 올라가자 개가 쫓아 올라가지 못하고 지붕만 쳐다본다는 뜻으로,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됨을

	비유적으로 ...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기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쥐를 잡게 되었다는 뜻으로, 우연히 공을 세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성이면 감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든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리어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말.
그물에 든 고기요[새요] 쏘아 놓은 범이라 그물에 걸린 고기[새/토끼] 신세 농 속에 갇힌 새 도마에 오른 고기	이미 잡혀 움짱달짝 못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순풍에 돛을 단 배 순풍에 돛을 달다.	배가 갈 방향으로 돛을 다니 배가 빨리 달린다는 뜻으로, 일이 뜻한 바대로 순조로이 진행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유의어 (TOPIK)				
거의	대부분	값	요금	
간신히	겨우	값	가격	
겨우	고작	값	금액	
겨우	불과	견해	의견	
계속	끊임없이	결과	성과	

그다지	그렇게까지	결점	단점	
꼭	반드시	기구	도구	
꼭	어김없이	구석	모퉁이	
꼭	틀림없이	단정	판단	
대강	대충	돈	현금	
드디어	마침내	됨됨이	이품	
마찬가지로	똑같이	몸집	덩치	
무엇보다도	가장	버릇	습관	
무엇보다도	제일	선입견	고정관념	
번갈아	교대로	성취 동기	의욕	
삼시간에	순식간에	시각	관점	
아쉬울 것 없이	모자람 없이	안	내면	
억지로	마지못해	안	속	
여간 (보통) ~지 않다	무척	역할	기능	

여간 (보통) ~지 않다	너무	인내심	참을성	
예상외로	뜻밖에	일자리	직장	
이미	벌써	의견	견해	
이따가	나중에	의논	협의	
일사천리로	거침없이	차이	차별	
전혀	통	처지	형편	
전혀	절대로	크기	규모	
전혀	결코	틈	사이	
차츰	점점	흐름	동향	
차츰	서서히	꾸다	빌리다	
치밀하게	꼼꼼하게	끊다	자르다	
치밀하게	완벽하게	끝다	당기다	
턱없이	많다	나르다	웁기다	
턱없이	절대적으로	나 몰라라 하다	외면하다	

흔히	자주	나 몰라라 하다	못 본 체하다	
수원하다	손쉽다	낮익다	전에 몇 번 보다	
알뜰하다	(돈을) 아껴 쓰다	노력하다	애를 쓰다	
어깨가 무겁다	부담이 되다	눈감아 버리다	모르는 척하다	
어안이 병병하다	어리둥절하다	단장하다	꾸미다	
어색하다	서먹하다	단장하다	가꾸다	
의기소침하다	풀이 죽다	대변하다	대신 나타내다	
전망이 밝다	앞날이 희망적이다	대하다	관하다	
찝찝하다	꺼림칙하다	덮어놓다	무턱대다	
철저하다	철두철미하다	말다	담당하다	
철저하다	투철하다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한산하다	한적하다	머뭇거리다	망설이다	
흔하다	많다	무승부를 기록하다	비기다	
가리키다	일컫다	미루다	연기하다	

가슴이 부풀다	기대에 가득 차다	밀지다	손해를 보다	
갈다	부꾸다	바빠움직이고 있다	서두르고 있다	
개다	접다	발생하다	생기다	
개의하다	신경을 쓰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밝혀내다	규명하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밝혀내다	드러내다	
보호하다	지키다	겸소하다	겸허하다	
겪다	경험하다	곤란하다	어렵다	
견디다	참다	곤란하다	힘들다	
견디다	버티다	곤란하다	난처하다	
결심하다	마음을 먹다	곤란하다	난감하다	
결심하다	마음을 정하다	나쁘다 (좋지 않다)	해롭다	
고치다	수리하다	넉넉하다	여유 있다	
고치다	수선하다	느끼다	깨닫다	
고생을 하다	애를 먹다	느끼다	절감하다	

그만두다	포기하다	느끼다	통감하다	
그지없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느끼다	실감하다	
극복하다	이기다	동일하다	같다	
기르다	키우다	드물다	귀하다	
기억에서 사라지다	잊어버리다	뚜렷하다	분명하다	
기억에서 사라지다	까먹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전력을 기울이다	전력을 다하다	복잡하다	뾰비다	
전력을 기울이다	최선을 다하다	사정이 안 좋다	형편이 어렵다	
꼬이다	얽히다	성취 가능하다	이룰 수 있다	
번지다	확산되다	일자리	직장	
번지다	퍼지다	의논	협의	
벗기다	까다	처지	형편	
벗어나다	극복하다	흐름	동향	
벗어나다	탈피하다	가리키다	일꾼다	

뽑다	고르다	가슴이 부풀다	기대에 가득 차다
비롯되다	시작되다	개다	접다 (fold)
사고하다	생각하다	개의하다	신경을 쓰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염려	근심
(상대방을) 생각하다	배려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생각조차 못 하다	업두를 못 내다	고생을 하다	애를 먹다
성취하다	이루다	그지없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성취하다	성공하다	극복하다	이기다
쇄도하다	빗발치다		
신뢰하다	믿다	전력을 기울이다	전력을 다하다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	꼬이다	엷히다
안심하다	마음을 놓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약이) 잘 듣다	효과가 있다	뚜렷하다	명확하다

어찌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원수를 갚다	보복하다	거리낌 없다	거침없다	
원수를 갚다	복수하다	까닭 없다	난데없다	
연연하다	집착하다	대단하다	변변하다	
절약하다	아끼다	변함없다	한결같다	
정미 들다	서로 친해지다	치우다	정리하다	
제목을 붙이다	제목을 짓다	큰소리를 치다	장담하다	
제외하다	빼다	팔리다	매진되다	
좌우되다	결정되다	함유하다	포함하다	
주도하다	이끌다	(긴장을) 해소하다	풀다	
증가하다	늘어나다	확인하다	검토하다	
증가하다	많아지다	휘말리다	휩싸이다	
지쳐 버리다	녹초가 되다	쩍쩍매다	꼼짝 못하다	
지쳐 버리다	힘이 빠지다	쫓겨나다	해고당하다	
잡다	잡다			

뚜렷하다	분명하다	부단하다	끈질기다	
복잡하다	복비다	빈틈없다	철저하다	
사정이 안 좋다	한편이 어렵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성취 가능하다	이룰 수 있다	소소하다	자잘하다	
수월하다	손쉽다	어색하다	서먹하다	
알뜰하다	돈을 아껴 쓰다	절박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다	
어깨가 무겁다	부담이 되다	차분하다	침착하다	
어안이 병병하다	어리둥절하다 (stun, dazzled)	가뿐하다	가볍다, 쉽다	
어색하다	서먹하다	개운하다	상쾌하다	
의기소침하다	풀이 죽다 (loosen, get limp)	거세다	드세다,, 과격하 다	
전망이 밝다	앞날이 희망적이다	거창하다	거대하다, 성대 하다	
찝찝하다	꺼림칙하다	건장하다	튼튼하다	

철저하다	철두철미하다/투철하다 (clear/pure)	결쫌하다	농후하다, 짙다 (thick)
한산하다	한적하다	고상하다	우아하다
꾸다	빌리다	과다하다	많다 (excess)
끊다	자르다	과도하다	지나치다, 오버하다
끌다	당기다	교묘하다	야무지다
나르다	옹기다	공교롭다	우연히
나 몰라라 하다	외면하다/ 못 본 체하다 (disregard)	급변하다	달라지다
낮익다	전에 몇 번 보다	간결하다	깔끔하다
노력하다	애를 쓰다	꾸준하다	한결같다
눈감아 버리다	모르는 척하다	나태하다	게으르다
단장하다	꾸미다/가꾸다	태만하다	소홀히, 등한히
대변하다	대신 나타내다 (on behalf of)	난처하다	곤란하다, 거북하다
대하다	관하다 (connected)	너그럽다	관대하다
덮어놓다	무턱대다	차츰	점점, 서서히

말다	담당하다	치밀하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머뭇거리다	주저하다/망설이다	턱없이	절대적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다	비기다 (end with a tie)	견해	의견	
밀지다	손해를 보다	결과	성과	
바빠 움직이고 있다	서두르고 있다	결점	단점	
밝혀내다	규명하다/드러내다	기구	도구	
번지다	확산되다/퍼지다	구석	모퉁이 (a corner)	
벗기다	까다	단정	판단	
벗어나다	극복하다/탈피다	뽐뽐이	인품	
비롯하다	시작하다	몸집	덩치 (physique)	
상대방을 생각하다	배려하다	버릇	습관	
생각조차 못 하다	엄두를 못 내다	선입견	고정관념	
성취하다	이루다	성취 동기	의욕	

왜도하다	빚발치다	시각	관점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	역할	기능	
안심하다	마음을 놓다	인내심	참을성	
약이 잘 듣다	효과가 있다	겨우	고작, 불과	
어찌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대강	대충	
원수를 갚다	보복하다/복수하다	드디어	마침내	
연연하다	집착하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미 들다	서로 친해지다	무엇보다도	가장, 제일	
간신히	겨우 (barely)	번갈아	교대로	
겨우	고작, 불과 (merely)	삼시간에	순식간에	
대강	대충	아쉬울 것이 없이	모자람 없이	
드디어	마침내	억지로	마지못해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상위로	뜻밖에	
무엇보다도	가장, 제일	일사천리로	거침없이	
번갈아	교대로	전혀	통, 절대로, 결코	

겸손하다	겸허하다	나쁘다	해롭다	
곤란하다	어렵다, 힘들다, 난처하다, 난감하다	넉넉하다	여유 있다	
느끼다	깨닫다, 절감하다, 통감하다, 실감하다	드물다	귀하다	
반의어(TOPIK)				
호평받다	혹평받다	형식적	실질적	
대우하다	괘시하다 neglect	혼란	안정	
대접하다	푸대접하다	객지	고향	
독하다	순하다 gentle	귀납적	연역적	
마중하다	배웅하다	단결	분열	
만들다	없애다, 허물다, 부수다	망각	기억	
무시하다	무시당하다	발달	퇴보	
반대하다	찬성하다	비관적	희망적, 낙관적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유치하다	수입	지출	
잠을 설치하다	푹 자다	우월감	열등감	
정신 차리다	정신을 잃다, 기절하다	적자	흑자	

초과하다	미달되다	절제	무절제	
허용하다	금지하다	집중	분산	
뽑다	박다, 꽃다	철저	소홀	
끄다	켜다/걸다	포함	배제, 제외, 빼다	
고백하다	감추다/숨기다	합리적	비합리적	
공유하다	독점하다, 독차지하다	효과	역효과	
나누다	곱하다, 합치다	벗다	끼다	
눅다	얼다, 굳다	빌리다	갚다, 되돌려주 다, 반납하다	
어긋나다	틀어맞다	빼다	넣다, 끼우다, 더하다	
올라가다	하락하다	서두르다	꾸물대다	
지키다	어기다, 공격하다	숨기다	찾아내다, 털어놓다	
식히다	데우다, 끓이다	야단을 맞다	칭찬을 받다/칭찬을 듣다	
갈다	개다	차지하다	빼앗기다	

고치다	부수다, 망가뜨리다	풀다	감다, 싸다, 묶다, 매다, 채우다
꼬이다	풀리다	확장하다	축소하다
마르다	젖다, 살찌다	흡수하다	배출하다
깔끔하다	지저분하다	허물다	쌍다, 짓다, 세우다
무뚝뚝하다	상냥하다	까다롭다	원만하다
버릇없다	예의 있다, 예의 바르다	깔끔하다	지저분하다
해롭다	이롭다	번거롭다	간편하다
화려하다	수수하다, 초라하다	뽕족하다	몽툭하다
흔하다	드물다, 귀하다 abundant - scarce	서투르다	익숙하다, 능숙하다
가볍다	무겁다, 신중하다	신중하다	가볍다, 경솔하다
개운하다	찝찝하다, 텅텅하다	원만하다	모나다
거뜰하다	찌뿌드드하다, 빠근하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흘쭉하다	조리 있다	두서없다
비지런하다	게으르다	축축하다	보송보송하다
신나다	맥 빠지다, 신망하다	흐릿하다	뚜렷하다, 분명하다
촌스럽다	세련되다 boorish, rustic - polishing	너그럽다	좁스럽다, 옹졸하다, 속좁다
감정적	이성적	곱다	밋다, 거칠다, 나쁘다
개방	폐쇄 open - closed	둔하다	섬세하다, 날쌐 다, 예리하다, 민첩 하다
공개	비공개 open - closed	딱딱하다	부드럽다, 물렁물렁하다
공통점	차이점	맑다	흐리다
부분적	근본적	알뜰다	험프다
수요	공급 arts and sciences	아리석다	슬기롭다, 똑똑 하다, 현명하다

점진적	급진적	옳다	그르다
차별	평등	진하다	흐리다, 연하다
폐지	부활	질다	열다
허용	금지	편하다	불편하다, 거북하다

동의어

제목을 붙이다	제목을 짓다
이만하다	끝내다
마찬가지로	같이
전망이 밝다	앞날이 희망적이다
바빠 움직이다	준비를 서두르다
일사천리	거침없이
어안이 병병하다	어리둥절하다
말다	담당하다
인내심	참을성
눈감아 주다	모르는 체하다
가슴이 부풀다	피로를 느끼다
부채질하다	부추기다
울며 겨자 먹기	마지못해
머뭇거리다	주저하다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당연하다
수없이 듣다	귀에 못이 박히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짐작하다	추측하다
거울	본보기
불꽃 튀다	치열하다
감탄하다	혀를 내두르다
이르다	가리키다
귀하고 소중히 여기다	애지중지하다
가장	더할 나위 없이
대단찮다	변변찮다
피치 못해	부득히
예정	계획
수리하다	고치다
쭉	계속
틀림없다	분명하다
반드시	어김없이
뽕 먹고 알 먹다	일석이조
단짠	죽마고우
우선	먼저
염려하다	걱정하다
중단하다	멈추다
늘어나다	증가하다

드디어	마침내
두다	놓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마음껏	실컷
모색하다	찾다
지푸라기라도 잡다	절박하다
고스란히	그대로
어찌할 수 없이	불가피하다
기원하다	유래하다
빈틈없다	철저하다
정도를 넘다	과도하다
똑같이 반복되다	다람쥐 쳇바퀴 돌다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다	안이하다
마련하다	준비하다
계다가	더구나
미루다	연기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부단하다	끈질기다
마구잡이	닥치는 대로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과언이 아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기우에 불과하다
수수방관하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다
반드시	틀림없이

다투다	싸우다
여유 있게	자유롭게
참을성	인내심
어깨가 무겁다	부담스럽다
억지로	마지못해
알게 모르게	공공연하게
생계의 어려움	궁핍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섭섭하다	서운하다
바로	당장
다루다	처리하다
급작스레	난데없이
낫다	호전하다
밀접하게	긴밀하다
오랜 바람	숙원
대중의 목소리	민익
까닭 없이	공연히
뚜렷해지다	두드러지다
반드시 거쳐야하다	불가피하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다	울며 겨자 먹기
얼굴빛	표정
별로	그다지
쓸모없다	소용없다

이끌다	주도하다
끊임없이	하염없이
토대	밑거름
소소하다	자잘하다
고정관념	선입견
줄여주다	완화하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혼내다	나무라다
포괄하다	아우르다
사이	틈
달하다	이르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속도를 내다	박차를 가하다
깨닫다	납득하다
참견하다	간섭하다
일으키다	방지하다
밝히다	표명하다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성과를 거두다	결실을 맺다
빠져들다	몰입하다
그다지	그렇게까지
함부로	마구잡이로, 닥치는 대로
휘말리다	휩싸이다

실마리	단서
꼬집이다	지적하다
과김치가 되다	매우 지치다
판이하다	다르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다	역지사지
범하다	저지르다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지원	뒷받침
마구 내놓다	남발하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들다	뽑다
신경 쓰다	의식하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의지하다	기대다
분별하다	가려내다
마련되다	비치되다
뚜렷하게	명확하게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끼치다
유지하다	고수하다
소중하다	귀하다
가라앉다	진정하다
무너뜨리다	허물다
발휘하다	펼치다

세다	헤아리다
자리 잡다	정착하다
주목하다	착안하다
여유 있게	넉넉하게
진행하다	추진하다
관심을 끌다	주목을 받다
비롯되다	전이되다

비슷한 문법

졸라대서	계속 조르는 바람에
발전해 감에 따라	발전해 가면서
좋아할 리가 없다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참이다	지금 출발하려고 했어요.
만들기 십상이다	만들기 일쑤이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몹시 불안하다
다르듯이	다른 것처럼
편리한 데다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줄이고자	줄이려고
쉬우므로	쉬운 만큼
입석이라도	입석이나마
복잡한 데다가	복잡할 뿐더러
오는 길에	오다가
먹든지	먹거나

느닷없이	갑자기
지내면 지낼수록	지내다 보면
빠는 것보다	빠느니
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고서야
비싸더라도	비싸도
원다는 것이	쉬려고 하다가
물어보나마나	물어보지 않아도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다시피
여기기라도 하듯	여기는 양
밋짚냐마는	미우랴마는
뛰어나다고 해도	뛰어난들
걷는 것은 고사하고	걸기는 커녕
없기에	없는지라
잃는 것보다	잃을 바에야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도착할 수 있게	도착할 수 있도록
설악산은 커녕	설악산은 말할 것도 없고
타지 않더라도	타지 않고도
위로하느라	위로한답시고
나아지겠거니	나아지려나
놀라울 정도로	놀라우리만치
올지도 몰라서	을까 봐
좋아지는 법이다	좋아지기 마련이다

몰두한 탓에	몰두한 나머지
주는 반면	주는가 하면
아니었더라면	아니었던들
몰라도	모를까
유지하지 않았더라면	유지했기에 망정이지
수월하지야 않겠지만	수월할까마는
참석할지 말지	참석할까 말까
흐르면 흐를수록	흘러감에 따라
후회하기보다는	후회하느니
읽으려고 들다	읽을라치면
취급되는 것이 예사이다	취급되기 십상이다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상되었건만
성사될 줄 알았는데	성사되려니 했는데
보기라도 하듯	보는 양
축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축적할 수 있거니와
이루었을지라도	이루었을망정
여기고 무시하다	치부하다
요긴해서	요긴한지라
날락 말락 하는데	날 듯 말 듯 하는데
일이기는 하나	일이다마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서도
걸다가 보면	걸노라면
의미한 다고 하더라도	의미한 다손 치더라도

하건만	하거늘
부탁해도	부탁하나 마나
발견하게 돼 있죠	발견하기 마련이다
구하기만 하면	구한다면야
미칠까 봐	미칠 세라
병원비는 둘째 치고	병원비도 병원비이려니와
어렵기는 하지만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끝난 셈이에요
빗발침에 따라	빗발침면 칠수록
있었을 텐데	있었건만
반박했다고 해서	반박했기로서니
관련하는 데다가	관련하거니와
걸려도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올랐다고 하나	올랐됐자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걱정스럽기만 하다
변명에 지나지 않다	변명일 뿐이다
정규 학교에 못지않게	정규 학교만큼이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늦을세라	늦을까 봐
생산하고도	생산했는데도
짧기는 했지만	짧으나마
없다면	없고서야
볼 셈으로	보겠노라고

말았으니	말은 이상
했다고 해서	했기로서니
좋았을 텐데	좋았으련마는
부족하기는 해도	부족하나마
쓰려고 하면	쓸라치면
시인이면서	시인이자
높다고 하여도	높을지언정
올 리는 없지만	오겠냐마는
상황으로 볼 때	상황으로 봐서는
위치뿐만 아니라	위치는 물론이거니와
될 줄	되리라고는
들었다고 해도	들었다 한들
잘하려니	잘하겠거니
보내려고 하니까	보내자니
후회하기보다는	후회느니
쉽지는 않겠지만	쉬울까마는

ĐÁP ÁN CÁC BÀI LUẬN THI TOPIK

제11회 - 고급: 현대 사회에서 나눔(분배)의 필요성

해외의 한 갑부가 자신의 재산 85%를 사회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액수도 액수려니와 그의 나눔 정신과 실천 정신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엇이 부자들의 기부, 재산의 사회 환원 등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까 궁금하다. 자신이 가진 것을 선뜻 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와 훌륭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놓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남과 나누고 사회와 더불어 살겠다는 생각이 더 깊어치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자들의 기부와 재산의 사회 환원은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경제력 차이로 인한 빈곤층의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나 각종 사회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을 위한 기금의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자들이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경제적 차이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나 사회의 안정을 꾀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나눔은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1년 전 회사에 취직했을 때부터 나는 월급의 1%를 기부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아직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크지 않다. 하지만 매월 작은 금액이지만 나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다.

제12회 - 고급: 동물실험

<반대>오랜 세월 동안 개나 고양이는 인간과 친구가 되어, 감정을 교류하면서 지내왔다. 개나 고양이처럼 인간과 가까운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동물들도 이 지구 위에서 인간의 이웃으로 살아 왔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이웃인 여러 동물들을 실험에 이용해 왔다. 동물실험은 주로 의학이나 약학, 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행해진다. 동물들은 의약품이나 식품을 개발하거나 신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에 투입되어 왔다.

그러나 동물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며 그들의 생명권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실험을 당하는 순간 동물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고통은 인간만이 느끼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신의 복리를 위해서 동물의 고통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인간과 동물을 막론하고 평화롭게 자신의 삶을 영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인간이 자연의 주인임을 자처하면서 자연을 괴롭히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동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물의 생명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논리는 인간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방식일 뿐이다. 이러한 이기적인 사고는 결국 인간과 자연의 파국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잔인한 동물실험은 중단되

어야 한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의 이웃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때 진정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찬성> 오늘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난치병,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의학, 생물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연구 결과의 성공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은 필수적이다.

동물실험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한다. 동물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의 개발이 앞당겨지고, 그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만약 동물들을 실험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을 무한정 늦어질 것이다.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어린 소녀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 고통 받는 인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동물들의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물실험은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새로운 의약품이나 식품이 개발되었을 때, 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이 신약의 효능을 체험하는 데는 많은 위험이 따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동물실험은 인간에게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많이 단축된다. 또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과 오랜 세월 동안 감정을 교류해온 동물들을 실험에 이용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또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인간의 오랜 꿈이기도 하다. 따라서 나는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_

제13회 - 고급: 지도자의 조건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뛰어난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지도자의 뛰어난 역량이란 무엇일까? 이 시대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지도자라면 우선 통솔력을 가져야 한다. 지도자는 자신의 조직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통솔력이다. 의견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까지도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힘은 지도자의 통솔력이 아니면 안 된다.

또한 지도자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우수한 사람일수록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자칫 자만심이나 독선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설령 그가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가 인간인 이상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어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본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곧 경쟁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라도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 조직, 나아가서 한 사회를 이끌 지도자라면 뛰어난 실력이 필수조

건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도자의 조건은 그야말로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지도자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제14회 - 고급: 올바른 인터넷 사용 태도의 예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인터넷 사용을 위한 윤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과연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우선,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의견 차이는 문화적 차이나 사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저마다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인신 공격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현대인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거나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의 사생활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어떤 사

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 공개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모두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좋은 인상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은 바로 이런 노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인터넷 사용의 올바른 태도란 한마디로 현실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5회 - 고급: 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

우리 사회는 지금 각종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굉장히 잔인해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감시 카메라가 있기는 하지만 은행이나 지하 주차장 정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감시 카메라의 성능이 대부분 그리 좋지 않아서 범인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나는 감시 카메라 설치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요즘에는 여성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

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밤늦은 시간의 골목 등은 요즘 같은 때에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곳까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제약을 느껴 함부로 죄를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인권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사회의 일각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고 있다. 범죄자에게 인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얼굴이나 이름을 공개했을 경우 범죄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범죄자의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더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를 유괴하거나 여성 성폭력 또는 연쇄살인 등 인간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이해하면서 관용을 베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 현장을 뚜렷이 보여줄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여 범죄 발생률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7회 - 고급: 신문의 기능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이러한 정보는 대부분 대중 매체에 의해 제공되므로 현대 사회에서 대중 매체가 담당하는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문은 대체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불필요한 정보가 넘쳐 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

욱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신문은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의 매체로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최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인 인터넷에 제시된 정보들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반면 신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대체로 믿을 만하다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다. 따라서 신문은 무분별하게 정보가 산재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문은 재미를 추구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는 방송 매체와는 차별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 발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에게 문제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대중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것이 신문이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이다.

신문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 비해 딱딱하고 무거운 매체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진지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즉 신뢰감을 주는 정보를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매체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제18회 - 고급: 자기 계발의 개인적.사회적 가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계발은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큰 가치를 갖는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 계발은 잠재된 소질을 발견하거나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 기여하여 자신의 가치를 한층 높인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숨겨진 소질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잠재된 소질을 찾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의 취미, 여가 활동을 해 보는 게 좋다. 아울러 외국어 학습, 자격증 취득과 같은 자기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통해 치열한 경쟁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자기 계발 활동은 일에 얽매어 삶에 지친 개인들에게 삶의 활력으로 작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이러한 자기 계발 활동은 개인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를 가진다. 무엇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능력을 높임으로써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근간이 된다. 또한 우수한 인적 자원은 한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서 다른 어떤 자원보다도 그 가치가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재들로 구성된 사회는 사회 자체의 발전은 물론이고 사회의 전반적인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층 개선된 사회적 환경은 구성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다시 사회에 기여하게 되며, 이 역시 다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로 이어진다. 이처럼 자기 계발은 특정 개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대단히 중대한 가치를 갖는다.

제19회 - 고급: 이야기 속 주인공이 뛰어난 인물로 선정되는 이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소설이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대부분 착하고, 현명하고, 훌륭한 외모를 가진 인물로 설정된다. 이처럼 이야기 속 주인공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훌륭하고 긍정적인 인물로 설정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설정이 악하거나 추한 것 보다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호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갓난아기들도 선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인간의 타고난 속성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대상이 감정이입 및 이를 통한 대리만족에 용이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소설이나 영화 같은 이야기 장르를 좋아하는 것은 주인공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일들을 대신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야기 속 주인공이 모두가 지향하는 성품과 외모를 갖추고 있어야 감정이입과 이를 통한 대리만족이 용이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기피와 지양 대상이 되는 부정적 인물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이들을 통해 대리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감정이입 또한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지닌 인물을 등장시켜야 독자나 시청자를 설득하기가 쉬워진다는 점도 중요했을 것이다. 이야기의 내용이나 거기에 담겨 있는 주장이 새로

운 것이라면 수용자 입장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구현하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모두가 지향하는 능력과 외모를 가진 인물이라면 그 새로운 내용과 주장들이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영화와 소설 같은 이야기 속 주인공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인물로 설정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이 여러 인간상 중 특정한 부문만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미화시키는 경향도 있음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하다.

제20회 - 고급: 통계 자료의 양면성

통계 자료는 각종 사회, 자연 현상 및 현황 등을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이면에 자료의 누락, 변용 등으로 사회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다.

먼저 통계 자료는 특정 사회 현상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므로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를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는 일기예보, 운세 등의 정보 또한 통계를 활용한 것으로서 생활에 편리성을 더하고 재미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통계 자료는 산출 대상, 기준 등에 따라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도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치를 조작.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 산출의 방법적 부적합성 등으로

수치화한 내용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정 해의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의 경우 장기간의 미취업으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인원 등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실업률에 대한 통계가 왜곡되거나 부정확하여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실업률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거나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잘못된 통계 자료 하나로 인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 자료를 대할 때는 그것을 절대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사회 현상의 한 단면 또는 추이를 따라가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21회 - 고급: 진정한 리더십

얼마 전 모 프로그램에서 오합지졸에 가까운 구성원들을 하나의 소리로 모아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내며, 우리 시대 리더의 모범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다. 그는 리더가 어떻게 한 조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멋지고 감동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의 리더십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실력과 열정’ 그리고 ‘소통과 신뢰’ 덕분이었다. 진정한 리더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동시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구성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실력을 갖춘 자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덤빌 수 없다. 리더는 실력자이어야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면 그 리더를 따르는 구성원들은 리더에게 언제나 한 수 접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을 때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말이 구성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좌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을 무한히 믿어 주는 신뢰가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깨워 주고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믿어 주어야 한다. 리더가 구성원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조직은 조직으로서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실력으로 구성원을 모으고 무한 신뢰로써 구성을 따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리더이자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의 실력, 구성원에 대한 무한 신뢰는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통이 용납되지 않는 조직은 독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독재로 움직이는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리더는 자세를 낮추고 구성원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조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리더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구성원의 눈높이에서 칭찬과 동기 부여, 신뢰와 긍정을 통해 구성원을 독려하고, 배려를 통해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리더의 권력으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목표 달성을 종용하는 구시대적 방식으로는 구성원을 화합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제22회 - 고급: 창의적인 사고 능력의 필요성

소위 지식, 정보 사회라하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가 일부 지식층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와 달리 누구나 쉽게 원하는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가치는 물론 그것을 가진 사람의 가치 역시 이전 시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 즉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창의적인 사고능력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는 것으로는 기를 수 없는 고차원적인 능력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새로운 무엇가를 발견 또는 발명하자면 바로 창의적인 사고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대할 때 항상 과연 그럴까, 왜 그럴까와 같이 그것을 평가하고 의문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려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함으로써 더 나은 방안을 찾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남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가치, 즉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소위 모두가 그토록 바라 마지않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사회가 원하는 새로운 모든 것을 창조,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제23회 - 고급: 바람직한 인간관계

인간은 가정과 학교, 또는 직장 등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 주는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인간관계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살다 보면 자신이 받을 이익을 먼저 계산해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적인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란 내가 받는 이익과 관계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럴 것이고 이러한 관계가 발전해 더없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관계를 맺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역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이다 보니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갈등과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4회 - 고급: 고난과 시련을 통해 배운 것

어린 시절부터 나의 꿈은 축구 선수였다. 좋아하는 만큼 축구에 소질이 있었기에 미래의 국가 대표 선수를 꿈꾸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때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내 꿈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그때 사고로 나는 발목을 심하게 다쳤고, 다행히라도 더 이상은 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고 절망했다.

그렇게 한 순간에 꿈을 잃었기에 그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사고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 자리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세상을 원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내게 축구와 관련된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해 주는 그런 기자가 되면 어떻겠냐고 하셨다. 그 순간 나는 어찌면 내가 그토록 꿈꾸던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고 그동안 꿈을 잃었다고 방황만 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때부터 그 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 내가 스스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꿈으로 가는 길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 매순간을 내 꿈을 위해 투자했다. 그렇게 나는 그토록 원하던 축구 전문 기자가 되었고 세계를 누비며 즐거운 축구 소식을 전하고 있다.

고난과 시련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서 많은 것을 앗아갈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닥쳐올 알 수 없는 시련들도 나는 즐겁게 맞서 나갈 것이다.

제25회 - 고급: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큰 부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명예를 얻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엇을 성공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성공의 기준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그러한 데에 있지 않다. 부, 명예, 지위와 같은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결과물만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하루하루의 삶은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비록 자신이 목표로 한 정도까지 성공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진정 성공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성공이 무엇이든 간에 그 결과물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인물들을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겼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단지 성공만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고통스럽게 여겼다면 결코 그러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다.

제26회 - 고급: 개인 정보 공개와 시청자의 알 권리

최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신문사나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대중매체가 보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정보가 중요하며 공개 여부에 대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도 옳다. 하지만 보도라는 것이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청자가 알고자 하는 혹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인만큼 보도는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집단 혹은 개인간의 갈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고 그 결과 잘못된 추측과 의문들을 양산해 낼 수 있다. 또한 사생활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정보 공개를 제한하게 될 경우, 이는 특정 이익 집단이나 권력 집단에 의해 악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사실들이 은폐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건 보도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 할 것인가이지 관련자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가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제대로 보도하려면 내용의 선별과 보도방식에 있어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대중매체는 그 파급효과가 그만큼 단순히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중하게 선별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과정에서의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할 때 국민의 알 권 리 는 정 당 하 게 보 장 될 수 있 을 것 이 다 .

제27회 - 고급: 경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현대 사회를 일컬어 소위 무한경쟁의 시대라 한다. 사회적 기회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얻고자 하는 구성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이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경쟁의 긍정적인 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누군가와 승패를 겨루는 게임을 할 때 더욱 게임에 집중하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게 되듯 경쟁 상대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노력하게 된다. 나보다 뛰어난 상대를 보면 자극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것이다. 한편 나보다 못한 상대는 나를 보고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즉 경쟁은 서로를 조금씩 더 발전시키는 자극이 되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나태한 마음을 다 잡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에는 이처럼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 너무 지나쳐 결과만 중시하게 되면 자신을 연마하는 과정으로서의 경쟁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만 드는 싸움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경쟁 상대가 자신의 발전에 자극을 주는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일 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로 인해 공정한 규칙은 결과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게 되며,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좋지 않은 태도가 사회에 만연하게 된다. 온갖 반칙이 난무하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각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과 타인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28회 - 고급: 선의의 거짓말이란

우리는 대부분 거짓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거짓말도 존재한다. 상대를 속여 피해를 주거나 자신이 이득을 보려는 목적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배려나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이를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한다.

선의의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상대가 진실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혹은 상대를 배려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진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따뜻한 거짓말이 진실보다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이를 테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자신의 병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진실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외에도 상대의 실수를 감싸주기 위해 하는 거짓말 역시 상대방에게 힘을 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좋은 의도로 한 거짓말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다. 실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진실을 원할 수도 있다. 상대가 진실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전한다면 그것은 단지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보다 깊은 인

간관계를 위한다면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의를 가진다는 이유로 모든 거짓말이 용인된다면 배려라는 이름 아래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거짓말이 난무 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제29회 - 고급: 토론에 필요한 자세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 이때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토론이다. 토론은 문제 해결 과정이자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토론을 잘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을 통해 합의를 보아야 하는 문제 상황은 무엇이고, 원인과 현상은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해진다. 또한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동시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므로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과의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토론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토론에 임할 때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내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을 잘 읽어야 상대방의 부족한 논리를 알 수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나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

청의 자세 이외에도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알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 상대방의 논리를 비판하는 전략과 방법을 생각하고 대처해야 설득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 인식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 경청의 자세가 바탕이 된다면 토론은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제 30 회 - 고급: 예술 교육의 필요성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등의 기초 학문과 함께 미술, 음악 등의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 교육은 음악이나 그림 작품을 감상하거나 창작하면서 정서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 교육은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는가. 크게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예술적 감각을 배우고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미술 표현 교육, 노래와 악기를 활용한 음악 감상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우면서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된다. 이는 나아가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협동심, 책임감 등을 기를 수 있다. 여타 다른 수업이 혼자 하는 활동이 많은 반면 예술 수업은 여러 명이 짝을 지어 하는 모둠 활동이 많다. 공동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이해와 협동심, 책임감 등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예술 교육은 예술 분야의 재능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게 하거나 건전한 여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학교에서의 예술 교육은 지적 능력의 향상과 정서 함양을 균형 있게 발달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31 회 - 고급: 행복한 삶의 조건

행복한 삶이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다.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의 모습이 같지 않겠지만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 속에서 만족을 찾을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욕구 충족이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된다.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적 안정을 삶의 최우선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높아진다. 또한 사회적 성취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행복한 삶의 조건은 사회적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개인적 차원에서라기보다 사회적인 수준에서 삶의 이유를 찾는다.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안정되어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 속에서 자신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될 때 역시 삶 속에서 행복

함을 느낀다.

행복한 삶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통해서도,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서도 가질 수 있는 삶이다. 자신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뿐이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행복의 가치를 타인과 나눌 때에 배가된다는 점이다.

제11회 - 중급: 나의 성격

나의 성격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는 적극적이고 명랑하다. 그리고 언제나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지내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의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다.

나의 적극적이고 명랑한 성격 덕분에 나는 친구가 많고 언제나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밝은 모습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다. 이것은 진정한 친구를 사귄 때는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가끔 내가 고민이나 걱정이 있어도 ‘너도 고민이 있구나.’라는 말을 할 뿐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는 것 같다.

사람들 앞에 가면 언제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가끔은 조금 힘들다. 앞으로는 내 성격 그대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도 가끔 나의 고민이나 걱정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

의 이야기도 들어 주고 싶기 때문이다.

제12회 - 중급: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 때 서른 살이 된다. 나는 그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가 아주 유창할 것이다. 그리고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한국에 우리 회사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한국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일이 나의 적성에 잘 맞는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본사로 출장을 자주 가니까 부모님과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어 좋다. 이렇게 두 나라를 오가면서 일하다보면 내가 한국과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나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 같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다. 나는 이런 나의 꿈을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곧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국제 무역에 대한 공부를 할 예정이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사정도 알 겸 경험도 쌓을 겸해서 한국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해 보고 싶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 기대된다.

제13회 - 중급:

나는 옛날 한국의 왕이었던 ‘세종대왕’을 만나 보고 싶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왕으로 유명하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왕으로 만 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을 정도이다.

내가 세종대왕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지금 내가 배우고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글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글자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주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모양도 아름답다. 또한 만들어진 배경도 특이한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만든 글자이다. 사람들이 글자를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걸 보고 세종대왕이 보통 사람들도 쉽고 편하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글자를 만들었을까? 세종대왕을 만나면 어떻게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물어 보고 싶다. 또 세종대왕 앞에서 나의 한글 쓰기 능력을 보여 주고 싶다. 한국어 선생님께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칭찬을 받곤 하는데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에게 직접 내가 쓴 한글을 보여 주고 싶다. 세종대왕도 외국인인 내가 한글을 예쁘게 잘 쓰는 것을 보면 기뻐할 것이다.

제14회 - 중급: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이다. 나의 담임 선생님은 오십이 넘으신 그 당시로는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다. 3학년에 올라갔을 때 멋있거나 예쁜 선생님을 기대했다가 선생님을 보고 그만 실망을 했다. 어린이날 운동회 때 나는 ‘쪽지 보고 달리기’를 했다. 쪽지에 적힌 내용은 ‘아버지 손잡고 달리기’였다. 사실 나는 일곱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날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쪽지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 나에게 선생님이 달려오셨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뛰기 시작하셨다. 나는 놀랐지만 다른 생각을 할 사이

도 없이 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렸고, 그리고 1등을 했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내 어머니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은 제가 수영이 아버지입니다.” 선생님의 그 따뜻한 목소리에 내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흘렀다. 아버지가 너무나 그리울 때였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 행동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때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제15회 - 중급:

나에게도 몇 가지 나쁜 생활 습관이 있는데, 특히 너무 늦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과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고치고 싶은 생활 습관이다.

이 두 가지 습관 때문에 나는 자주 어려움을 겪곤 한다. 예를 들어 밤에 늦게 잠을 자는 습관 때문에 자주 학교에 늦는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혼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또 방학 때는 계속 숙제를 미루고 안 하다가 방학이 끝나기 며칠 전에야 겨우 하곤 한다.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면서 다음 방학에는 꼭 미리 숙제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 두 가지 습관을 고치기 위해 나는 몇 가지 일을 해야 한다. 먼저 늦은 시간에 잠을 자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내가 늦잠을 자는 이유가 밤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일을 얼마나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

방학 숙제도 일주일에 얼마씩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방학이 끝날 때 한꺼번에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제16회 - 중급: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만족스러운 마음이 들 때이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단순한 만족감에서부터 내가 뭔가 해냈을 때 드는 크나큰 만족감까지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다.

나는 행복이란 만족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잘 하는 것이 많아도 자신이 만족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는 만족할 줄 몰랐다. 지금 생각해 보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당시에 나는 자주 불만스러워했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꽤 괜찮은 편이었는데도 더 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했으며 좋은 여행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탓을 하면서 불평을 했다.

그런데 언젠가 친한 친구가 나에게 옆에서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항상 만족스러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내가 만족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과 행복을 느끼도록 노력하였다. 작은 실수는 내 인생의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이고 큰 문제도 좀 더 노력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며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이다.

제17회 - 중급:

세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저는 노트북 컴퓨터가 꼭 갖고 싶습니다.

저는 학생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과제를 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해서 자료를 찾을 일이 많은데, 급하게 뭔가를 해야 할 때 컴퓨터가 없어서 불편한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노트북 컴퓨터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세계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컴퓨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노트북 컴퓨터가 있으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때 편리하고 좋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그 자리에서 찾아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노트북을 사지 못한 이유는 노트북 컴퓨터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가난한 유학생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학비를 내고 나면 생활하는 것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지만 학기 중에는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하지만, 아직 노트북을 살 만큼의 돈을 모으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돈은 30만 원정도입니다. 제가 사고 싶은 노트북의 가격은 100만원인데, 앞으로 70만원을 더 모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꼭 새로 산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18회 - 중급:

내가 사는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한국의 남쪽에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이다.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바다이다. 시원한 바람이 쉬지 않고 부는 바다가 있어서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부산으로 모여든다. 나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쓸쓸할 기분이 들 때마다 바닷가로 나가서 바람을 쐬곤 한다. 그곳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나면 다시 힘을 얻는다.

이처럼 바다가 있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런데 부산의 겨울이 그다지 춥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더라도 부산을 방문할 때 옷을 너무 가볍게 입으면 곤란하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추운 곳이기 때문이다.

부산은 바다도 아름답지만, 그것 못지않게 유명한 게 하나 더 있다. 10월에 열리는 영화축제,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이다. 매년 10월이 되면 부산의 각 극장들이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화배우와 감독들이 부산을 방문한

다. 나도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제 기간에는 아무리 바빠도 꼭 남포동 영화의 거리로 가서 영화를 본다.

이처럼 부산은 바다의 도시이고 영화의 도시이다. 여러분이 바다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꼭 부산을 한 번쯤은 방문하기 바란다. 틀림없이 부산에서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19회 - 중급:

내가 닳고 싶은 사람은 10년 전 일본어를 배울 때 만났던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은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전날 배운 내용에 관한 쪽지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시험을 못 친 사람은 백 원씩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분은 한 달 강의가 끝날 때면 우리가 100원씩 낸 벌금으로 과자를 사와서 파티를 하곤 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직접 집에서 삶아온 계란은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는 우리를 참 귀찮고 번거롭게 하는 분이시지만 수업이 끝나면 우리에게 따뜻하고 자상하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선생님처럼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을 귀찮게 하는 까다로운 교사이면서 수업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교사가 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또한 저는 학생들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리고 수업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항상 학생에게 관심의 눈길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20회 - 중급: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책을 읽곤 한다.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책이 다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책은 한국의 전래 동화이다. 한국에 와서 읽었던 전래 동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라면 ‘해님과 달님’을 꼽고 싶다.

산 속의 호랑이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떡장수 아주머니를 잡아먹고 나서 그 남매 아이들까지도 잡아먹으려고 욕심을 내다가 결국 죽게 된다. 한편 고아가 된 데다가 호랑이에게 쫓기던 남매는 하늘의 도움으로 오빠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뭐가 좋으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이야기는 물론이고 한국의 전래 동화 안에는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한국인의 정신문화가 담겨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화를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전래 동화의 가장 큰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을 하나 소개하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 많이 갖고 있을 때 그 중 하나만 내게 달라고 농담처럼 얘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제21회 - 중급: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내가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편지 묶음이다. 이 선물은 초등학교 동창한테서 2년 전에 받았다. 그 친구와 나는 초등학교

교 6년 동안 내내 같은 반이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나는 서울로 전학 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자매라고 부를 만큼 단짝이었던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무척 슬펐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은 꼭 편지를 주고받자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서울로 온 지 얼마 안 되어 내가 유학을 떠났기 때문이다. 귀국 후에 정신없이 지내고 있을 때 부모님 댁으로 한 묶음의 편지가 도착했다. 놀랍게도 편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친구가 보내온 것이었다. 나에게 보내려고 편지를 썼지만 차마 보내지는 못했다는 말과 함께 10여 년 동안 그 친구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적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편지에 정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다. 부모님 외에도 늘 나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뒤로 우리는 다시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내 인생에서 그 친구가 나에게 보내 준 것만큼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을까? 친구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나는 친구의 마음을 받았다.

제22회 - 중급: 내가 고치고 싶은 점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다. 낯선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 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는 금방 얼굴도 빨개진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나의 성격을 고치고 싶다.

학교 수업 중에는 과제를 발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항상 과제를 열심히 준비하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준비한 것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 그리고 친구들과 조별활동을 할 때 좋은 생각이 있어도 나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항상 같은 조친구들의 의견만 따라간다. 내가 학교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격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성격을 고치기 위해 나는 축구 동호회에 가입할 생각이다. 모두 나처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처음 만나도 덜 어색할 것 같고 함께 이야기할 거리도 많을 것이다.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고 함께 이야기도 하면서 나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고 싶다.

제23회 - 중급:

어렸을 때 나는 키도 작고 부끄러움도 많아서 친구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학교에 가기 싫어졌고, 성적도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선생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자신감을 가지라며 격려해 주셨다. 그 후 선생님께서는 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구들 앞에서 나의 장점을 칭찬해 주셨다. 나는 선생님 덕분에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성격도 활발해지면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도 다음에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내 결심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내

가 앞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제24회 - 중급: 10년 후의 나의 계획

나는 10년 후에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싶다. 한국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과 동료로서, 선후배로서 어울려 살고 싶다. 그들과 직장 동료로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후배로서 본받을 점이 많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고등학교 때이다. 가족과 함께 한국을 여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문화, 나에게 친절했던 한국 사람들. 그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그것이 내가 한국어를 전공한 이유이다. 예전에 비해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한국과 한국인, 한국 문화를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이다.

제25회 - 중급:

나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교통이 편리한 집, 공공시설이 가까운 집에서 살고 싶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살고 싶은 집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기 때문에 남쪽 방향의 집에는 해가 집 안에 가득 들어온다. 햇빛이 들어오면 집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난

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좋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하면 모든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나 회사를 다닐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쉽게 지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집 주변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학교나 회사, 병원, 공원, 영화관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러한 시설들이 주변에 있다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편하게 즐길 수도 있다.

제26회 - 중급: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들과 함께 갔던 여행은 아주 특별했다.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지금와 생각하면 그 여행은 어머니의 ‘추억 찾기 여행’ 이었다. 졸업한 후에 가족들과 서울로 이사를 와 그곳을 떠난 지 꽤 오래되었다는 어머니는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많이 설레어하셨다. 어머니께서 서울로 이사오기 전까지 사셨다던 동네에도 가고, 졸업한 초등학교에도 가 보았다. 걸어서 한 시간쯤 걸리던 학교는 실제로 가 보니 30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 꽤 먼 줄 알았는데, 이 길이 이렇게 짧았나?” 라고 말씀하시며 어머니께서 웃으셨다. 학교로 가는 길가에는 이름 모를 꽃이 많이 피어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꽃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주셔서 걸어가는 내내 신나고 재미있었다. 아마 꽃을 좋아하시는 어머니께서도 그 길을 걸으면서 나처럼 행복해하셨을 것같았다. 학교로 가는 중간에 우연히 어머니의 어릴 적 친구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이 무척 좋아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날 저녁은 그 친구 분 댁에 가서 먹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추억을 찾아

떠난 그 여행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다. 기회가 되면 다시 꼭 한번 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제28회 - 중급: 나의 장점과 단점

나의 성격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의 장점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것이다. 이런 성격 덕분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즐겁게 생활을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뭐든지 열심히 한다. 그렇지만 이런 나에게도 단점은 있다. 성격이 꼼꼼하지 못하고 덤벙대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실수가 많고 중요한 일도 잘 잊어버린다. 그래서 실수를 할 때마다 이런 나쁜 점은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나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고쳐야겠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는 수첩에 메모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일을 하면서 할 일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의 단점을 고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단점을 고쳐서 덤벙대지 않고 꼼꼼한 내가 되고 싶다.

제29회 - 중급:

누구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고 싶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해 너무나 아쉽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조용하고 수줍은 편이어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단지 평범한 학생이었을 뿐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별로 없다. 지금 생각하면 왜 적극적으로 어울리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취미 활동도 하고 싶다. 그렇게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이 추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돈보다 소중한 재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

제30회 - 중급: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충분히 만족하지 않는다. 더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족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하는데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에게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힘이 부족하다. 특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다양한 의견을 주도적으로 모아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의견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항상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멋있게 이끄는 사람들을 보면 그 능력이 부러울 때가 많다.

나에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끄는 능력이 생긴다면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나의 의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부딪힐 때도 그것들을 잘 조정해 가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면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